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불편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송이도 서로 부담”

광주 5곳·전남 81곳 재량휴교 ‘교육의 날’로 바뀌달라 청원도

‘스승의 날’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스승의 날’이 교원의 사기 진작을 넘어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스승의 날 재량 휴교를 택한 학교는 초등학교 56곳, 중학교 17곳, 고등학교 8곳 등 총 81곳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한 광주지역 재량 휴교 학교도 초·중·고교 등 총 5곳이다. 쉬지 않는 학교들 역시 스승의 날 행사를 간

소화하거나 체육대회 또는 체험학습 등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이처럼 학교들이 재량 휴교나 스승의 날 행사 대체를 선택한 이유는 2016년 이른바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김영란 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수행하고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약에 상관 없이 식사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과거 정(情)으로 선물하던 카네이션조차 제한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학생 개인이 달아주는 생화 카네이션은 안 되고, 학생 대표가 달아주는 꽃은 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꽃 한송이도 법규를 따져야 하는 탓에 교사도 학생도 ‘마음 불편한 날’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올해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그는 “교육부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유공교원 표창을 하고 있지만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며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31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에도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올라와 1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차라리 불편한 기념일을 없애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87.4%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2009년 같은 조사에서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5.3%였던 것에 비해 10년 사이 3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5.3%가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는 ‘학생 생활 지도 기피, 관심 저하’(50.8%)가 제일 많았고, ‘학교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2.9%), ‘헌신, 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13.2%)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선대 교무위원단 5·18묘지 참배 조선대학교 박관석 법인이사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단 30여 명은 5·18 제 39주기를 맞아 13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와 5·18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노점상 정비·묘지 청소

북구 5·18 39주년 맞아

기념행사 지원대책 수립

광주시 북구가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기념행사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제39주년 5·18 기념행사 지원 대책과 자체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는 오는 17일까지 국립5·18민주묘지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녹지정비·제초작업 및 특별방역을 진행하고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내 보도, 도로조명을 점검한다. 또 오는 20일까지는 특별 청소기간으로 정해 국립5·18민주묘지 주변과 시가지지를 집중 정비한다.

기념식 당일(18일)에는 행사장 주변에 교통지도요원을 배치해 방문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 대비한 의료지원반도 운영한다.

자체 추모행사도 추진한다.

북구청 광장에선 15일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주먹밥 나눔 행사를 열고 24일에는 일곡 제2근린공원에서 주민 400여명과 함께 5·18을 추모하는 오월음악회를 개최한다. 17일부터 18일까지 북구새마을회와 북구여성단체 회원들은 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 참배객들에게 행사장을 안내하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급수봉사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 뜨는 시각 05:30
해 지는 시각 19:28
달 뜨는 시각 14:24
달 지는 시각 02:46

바람에 실려온 꽃가루

대체로 맑고 동부남해안 지역에 비 오는 곳 있었다.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54 15:54
여수	11:42 23:59	05:20 18:04

◇ 주간 날씨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16/29	16/29	16/29	16/29	15/27	14/26	14/26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영·호남 어린이 우정 담은 타임캡슐 20년만에 개봉

20년 전 영·호남 초등학생들이 물었던 타임캡슐이 개봉된다. <사건>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년 전 물었던 영·호남 학생 ‘꿈과 우정의 타임캡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담양 전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개봉된다. 또 같은 시각 경남도교육청도 경남 의령 소재 경남학생교육원에서 타임캡슐을 연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1999년 5월 26일 영·호남 학생들의 우정을 나누기 위해 타임캡슐을 전남교육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원(당시 경남덕유교육원 의령분원) 앞마당에 각각 묻었다.

당시 전남과 경남의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1072명(전남 559명, 경남 513명)은 인적사항과 ‘20년 후 나의 모습’ 등을



B5 용지에 작성한 뒤 코팅한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를 타임캡슐에 담았다.

개봉행사에는 캡슐에 카드를 봉인했던 주인공 50여명(전남 44명, 경남 1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다. 타임캡슐을 발굴한 뒤 강당으로 옮겨 개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남구 때 이른 초여름 맞아 여름철 방역 조기 돌입

광주시 남구가 이른 초여름 날씨로 인한 각종 감염병과 해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집중방역에 본격 돌입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남구 16개 동 전역에서 하절기 방역이 진행된다. 오는 10월 21일까지 5개월간 방역 인

력·장비를 총 동원해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남구 보건소 소속 기동반을 비롯한 민간 위탁 방역기관 4곳에서 운영 중인 차량용 방역장비 17대와 휴대용 방역장비 77대 등 총 94대를 투입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경찰 경호 받으며... 오리가족 14남매의 험난한 이사길

광주 광산경찰 10차로 통제

10시간 여정 자연으로 돌아가

“운전자 여러분, 청동오리 14남매가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나들이 차량들도 불빈 광주 광산구 수완동 임방울대교가 긴급 통제됐다. 경찰이 정차한 운전자들에게 겨울나기를 마친 청동오리 가족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어미오리를 선두로 새끼오리 14마리는 뒤뚱뒤뚱 서툰 걸음마로 왕복 10차로를 가로질렀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인근 아파트 옥상을 떠난 오리가족이 직선거리로 200m 남짓한 풍영정청에 도착하는 데는 10시간이 걸렸다.

오리가족의 여정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풍영정청 인근 한 아파트 옥상에 날아든 어미 청동오리는 겨우내 알을 품어 새끼를 부화시킨 뒤, 지상 20층인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뛰어 내렸다. 본능에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다. 하지만 어미는 새끼를 모두

잃었고, 이듬해 겨울이 되자 또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와 새끼를 길러냈지만 비극은 반복됐다.

오리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한 주민들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이번 겨울에도 찾아온 어미와 새끼를 지켜주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동시기가 오자 비닐을 이어 붙여 만든 ‘탈출 통로’를 옥상에서 지상까지 연결했고, 여기에 경찰은 오리가족을 에스코트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해상화재,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 SGI서울보증, AXA AXA, AIG, NH농협손해보험